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정 순택 부산광역시 교육감

65년 독일의 원조를 받아 해운대에 한독 여자기술학교를 세우면서 교육계와 인연을 맺은 정순택 교육감은 교육의 목표를 함께 사는 삶을 위하여 쉼없는 규칙을 충실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불행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살아 온 날의 대부분을 학생을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연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정교육감이 만들어 온 부산 교육의 이사진을 들어 본다.

▶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은?

우리 교육청은 2000년도 부산 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하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상의 구현을 위해 열린 교육을 통한 인간 존중 교육의 충실, 지식·정보화사회 대비 교육 강화,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책임 운영제 확립,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 지원의 내실화,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 향상 이 다섯 가지의 중점 시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초·기본 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3대 기본 교육 운동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새로운 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과 기능 재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의 최고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가 창의적인 인간, 둘째는 자기 주도적인 인간, 셋째는 개방적인 인간, 넷째는 협력하는 인간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창의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나라는 '지식 식민지'의 처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길러 주어야 합니다.

또, 세계화 시대에서는 민족 정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협력하는 인간은 바로 신뢰와 봉사와 협동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의 방향을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 (1) 상황 적응적 교육에서 상황 주도적 교육으로
- (2) 지식·정보의 단순한 전수 체제에서 지식·정보 생성 체제로
- (3)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육으로
- (4) 학교 중심의 중국적 교육관에서 생애에 걸친 평생 교육관 중심으로
- (5) 평등성 못지않게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 (6) 교육과 훈련의 분리에서 연계로
- (7) 학교 중심 인력 양성 체제에서 사회와 통합한 인력 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꼭 버려야 할 교육에 대한 편견과 관습이 있다면?

먼저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학교 중심의 교육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 그 자체가 교육의 장으로 변했으며, 학습 적령기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 생애를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문 중심의 학력관입니다. 지금은 학벌보다는 개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식 기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 아이』만이라는 사고에서 『우리의 아이들』로 사고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학교 3학년의 체격 중, 키와 몸무게는 남학생이 각각 3.13cm와 3.23kg, 여학생은 1.77cm와 1.33kg씩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 체력은 해마다 저하되고 있어 학교 체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윗몸 일으키기와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10년 전에 비해 '99년에는 남학생이 각각 4.9회와 6cm, 여학생은 0.7회와 11.2cm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체력 저하 현상은 학생 비만, 시력 저하, 구강 질환 등과 함께 학생 건강에 적신호로 받아들여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판내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은?

앞서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 검진 방향을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정하고 소변 검사, 결핵 검사, 혈액형 검사는 물론 비만도 검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종합 검진, 초등학교의 척추 측만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시력



▲ 열린 교육 공덕 초등 순시



▲ 학교 급식 시찰



▲ 교육감과 학생과의 대화

저하의 원인이 되는 교실의 조도를 개선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녹지 시설의 확충, 올바른 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양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청소년 문화가 퇴폐와 향락으로 흐를 위험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청소년의 건전 문화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청단위의 다양한 학생 중심의 축제를 장려하고, 두 곳의 학생 종합 체육관을 건립하고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고 있으며, 특히 경관이 수려한 성지곡 수원지의 어린이 대공원 일대를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민 도서관을 청소년 전문 도서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대강당과 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 10여개의 최신 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교육 문화회관』을 개관, 기존의 어린이 회관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이곳을 청소년 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교사상과 학부모상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간 교육자들 중에는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페스티벌로써 같은



- ◎ 경남 하동 출생('41)
- ◎ 하동 고하초등학교, 부산중·고, 동아대 법정대 법학과('48~'65)
- ◎ 동아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수료 (교육학석·박사)('75, '95)
- ◎ 한독여자기술학교장('73~'93), 한독여자실업고등학교장('79~'93)
- ◎ 국립 부산 해사 고등학교장('93)
- ◎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93~'95)
- ◎ 제10대, 11대 부산광역시 교육감('95~현재)

실천적 교육자도 있고, 듀이와 같은 탁월한 이론적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에게는 전문적인 학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는 중요한 학습 환경이며 생활의 모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하여 먼저 자기의 본성을 갈고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매우 큰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자 동반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의 능력을 능가하는 인물은 무수히 많아도 부모의 인격을 능가하는 인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전수하는 일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는 부모가 가장 바람직한 부모상일 것입니다.

▶ **교육계에 몸담게 된 계기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65년 독일의 중앙 개발 원조 위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부산 해운대에 한독 여자 기술 학교를 세운 것이 교육계와 맺은 첫 인연이었습니다. '61년 군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에 의해 조국 근대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독일의 지원을 받는 여자 기술 학교를 설립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후 '69년에는 당시 한국에서는 최첨단 실험·실습용 자재를 갖춘 한독 여자 실업 고등학교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국에서 여성 실업 교육의 모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성 인력 전문 양성 기관을 설립하여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 지금 생각해도 큰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95년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부산 교육을 이끌어 오면서 '97년, '98년, '99년 연속 3년을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이

뜻깊은 일로 기억됩니다.

▶ **평생을 지켜 오신 좌우명이나 교육자로서의 소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오는 동안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사를 통해 위인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을 후세 사람들은 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만 똑똑하면 되고 자기 가족에게 피해가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사람 사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삭막하겠습니까.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를 지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모든 교육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간 존중 교육을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시는 일은 ?**

특별히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하루 일을 설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많은 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신체를 단련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생활 태도야말로 건강 유지의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72